

社會學的 側面

李 光 奎*

I. 序

濟州島는 地理的인 條件으로 인하여 特殊한 性格을 갖는 것으로 韓半島에서 멀리 떨어진 것과 韓半島의 南部에 있어 氣候的인 條件이 다른 것, 섬이 火山島라는 것 그리고 크기가 지나치게 작지 않다는 등의 조건으로 濟州의 特有한 性格과 文化를 발전시켜 왔다.

文化的 특수성은 言語와 物質文化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같은 한국어이면서도 方言이 너무 심하여 전혀 이해하기 힘든 言語가 濟州도의 方言이다. 自然環境과 氣候條件에 따라 家屋이며 服飾이며 食生活에서 濟州도의 특수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物質文化나 言語 못지 않게 濟州島의 特性을 보여주는 領域이 社會生活이라 하겠다. 社會生活이 다른 것은 社會를 지배하는 社會構造가 다르기 때문이며 社會構造는 개인의 意識構造의 所産이라는 데 흥미로운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문제란 文化나 社會를 연구하는 것에서의 문제로 濟州도 特有의 社會構造가 韓國文化의 中心地인 陸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文化의 傳播의 과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나, 아니면 濟州도라는 특수한 自然環境의 所産이나 하는 本質的인 것으로부터 濟州도의 事例와 현상을 통하여 韓國이라는 全

* 서울대학교 教授

體 社會를 再認識하고 再解析하는 데 이르기까지 제주도는 실로 學問上 重要な 意味를 가진 곳이라 하겠다.

이러한 立場에서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이룩된 제주도의 社會학 내지 社會人類學的 資料를 기초로 제주도의 社會構造를 이해하기 위한 社會現象을 보기로 하고 이것에 관한 見解의 差異로 인하여 한 때 學界에서 논란이 되었던 論爭을 평가하며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논하여 제주도의 社會人類學的 重要性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

II. 家 族

(a) 제주도에서 무엇보다 特色이 있고 社會學的으로 중요한 것이 제주도의 家族이다. 제주도의 現地調査를 행하는 社會學者나 人類學者가 부닥치는 첫째의 문제가 어떤 要件을 家族으로 定義하느냐에 따라 家族의 數와 形態와 類型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한 울타리 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결혼한 아들이 그의 妻子와 同居하면서, 부모와 未婚子女가 안채에서 독립된 취사를 하고 아들家族이 바깥채에서 독립된 취사를 하고 있을 경우, 이것을 한 가족으로 보느냐 두 가족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흔히 가족을 정의할 때 社會學에서는 가족이란 夫婦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며 共同의 居住와 共同의 經濟單位를 형성하는 社會集團이라 한다. 이 세 가지 가족의 요건 중 거주에다 비중을 두면 위에서 본 가족은 한 가족이고, 經濟單位에 비중을 두면 두 가족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른바 韓半島의 陸地에서는 겪을 수 없는 것이다. 京畿나 嶺南地方, 湖南地方 어디에서나 가족이라면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을 연구하면서 제주도 가족을 特殊家族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玄容駿은 寢食과 生産, 消費를 하나로 하는 對內的인 實際家族과 道民의 意識 그리고 公簿上的 對外的인 社會的으로 公認된 家族으로 구

분하였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實際家族이고 거주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公的 家族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核家族이고 外形上 意識上으로는 直系家族이라 하였다(玄容駿 1973:72).

이러한 분류와 파악은 적절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나 가족의 수를 말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면 한 마을의 가족의 수를 말하면서 實際家族은 50호이고 外形上 直系家族으로는 30호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의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公簿上의 가족이 行政上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社會學的으로는 經濟를 단위로 하는 實際家族이 유리하다. 그것은 居住와 經濟의 두 조건에서 經濟生活이 더 중요한 意味를 갖기 때문이다.

경제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면 그것은 한 마을에 있는 가족의 수를 계산하는데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 볼 相續制度, 分家制度 등과 관련짓기에 유리하며 이에 따라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b) 제주도 가족의 특성은 核家族的 性格에 있는 것이다. 혼인한 여자가 혼례식 올리고 바로 媿家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媿家와 親庭을 왕래하다가 완전히 독립된 獨自的인 취사를 할 수 있어야 媿家에 安住한다. 그리고 新夫婦가 안거리에 있건 밖거리에 있건 자기들만의 食生活을 영위하고 한 울안에 거주하는 媿父母와는 별도의 취사단위를 형성한다. 媿父母는 동거하는 未婚子女와 더불어 취사단위를 이룬다.

이러한 媿父母와 子夫婦와의 관계를 陸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子夫婦가 별도의 가옥에서 살면 몰라도 한 울안에서 사는 한 子婦는 媿父母와 媿同生の 식사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濟州島의 家族을 獨立型家族이라 하였다. 獨立型家族이란 陸地의 家族과 비교하면 그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韓國家族의 전형적인 유형은 直系家族이다. 長男은 결혼 후 父母와 동거하여 三代家族을 이룩하고 次·三男은 결혼 후 조만간 분가하여 核家族을 형성한다. 따라서 韓國家族은 長男으로 이어지는 直系家族이라 하겠다.

父母와 동거하는 長男은 父母가 노쇠하면 아버지로부터 家長權을 계승받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主婦權을 계승받는다. 이러한 계승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韓國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으니 하나는 西南型이고 하나는 東南型이며 하나는 濟州型이다. 西南型이란 京畿道·忠淸道·全羅道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父母가 죽어서 비로소 子夫婦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終身型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慶尙道에서는 시어머니가 60세를 전후하여 며느리에게 主婦權을 넘겨주고 동시에 안방을 물려주고 건넌방으로 간다. 이것과 同時에 아버지도 아들에게 家長權을 이양하니 이것을 隱居型이라 하겠다. 이러한 隱居型이나 終身型에 비한다면 濟州島의 型은 며느리가 처음부터 독립된 生活를 하는 獨立型이라 말할 수 있겠다.

(c) 濟州島 家族의 構造的 特性은 이와 같이 獨立的 性格에 있으며 그 獨立性은 長子에게 있기 때문에 韓國的인 유형의 하나이지 그것이 결코 日本家族도 中國家族도 아닌 것이다.

흔히 濟州島 家族의 성격을 논하면서 濟州島에서는 家內財産을 諸子에게 均分相續하는 것이라 한다. 家族의 具體的인 事例를 조사한 대부분의 學者들이 濟州島에서는 父母가 미리 아들들의 상속의 몫을 생각하여 두었다가 첫아들부터 나누어주되 次·三男도 집과 土地를 分配받는 것이 長男과 大差가 없다고 한다 (李光奎 1974:51).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韓國的 범위에서의 均分이지 中國과 같은 적은 家具부터 分配하고 철저히 平等을 주장하는 中國과는 다른 均分인 것이다. 특히 長男에게 祭祀를 상속시키고 이에 따른 土地의 일부를 가산하여 주는 것은 韓國的인 특색인 것이다.

특히 長男에게 집을 물려주고 父母가 未婚子女와 더불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사례나 결혼한 長男에게 안거리를 물려주고 父母가 밖거리로 나오는 일은 中國에는 없는 日本의 隱居制度 내지 慶尙道の '안방물림' 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d) 濟州島 家族의 특성은 獨立型이며 이것이 女子中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濟州島의 家族을 논할 때 父母가 子夫婦에게 안거리를 물려주거나 집을 주고 未婚子女와 더불어 생활을 하다가 모든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 老後에 長男의

집에 다시 오거나 別居하거나 또는 長男夫婦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老父母中 일방이 사망한 경우 예컨대 老父가 사망하고 老母만이 남았을 경우 몹시 쇠퇴하지 않으면 老母는 獨立된 생활을 하고 老母가 사망하고 老父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며느리가 모시게 된다. 말하자면 濟州島 家族의 獨立性이라는 것은 既婚女子 1인이 生活의 單位가 된다는 것이다(佐藤信行 1973 :110).

이러한 濟州家族의 특성은 日本의 八丈島 家族과 비교함으로써 그 성격이 두드러진다. 八丈島에서도 子夫婦가 처음부터 독립된 취사단위를 형성하고 住居를 같이하거나 별도로 하거나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父母中 일방이 사망하면 아들이 남은 父나 母를 돌보아 준다. 그러나 濟州島의 家族에서는 母가 健全한 이상 며느리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 濟州島 家族은 老母가 獨自의인 生活單位를 이루고 있는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既婚女子가 生活 전반을 이끌어가는 母中心的 家族이라는 데 특유한 성격이 있는 것이다.

濟州島는 土質上 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가 되며 이것도 대규모 기계화보다 소수의 家內勞動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농업이다. 土地는 대부분 남자들이 소유하고 농사에서 男子들은 쟁기로 밭을 가는 힘든 일만 담당하며 女子들은 김매기, 씨뿌리기, 보리베기 등 파종부터 수확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농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女子인 것이다. 심하게 말하여 濟州島에서는 男子가 없어도 女子 혼자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어도 男子는 女子없이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겠다(趙惠貞 1982:150).

농사 이외에도 돼지를 기르는 것이며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며 빨래하는 것 등이 모두 女子의 일이다. 女子가 바쁠 경우 男子들이 子女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濟州島에서는 男子들이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아이나 보고 있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家事를 女子가 처리 운영하고 男子는 家事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女子가 장사를 하여 큰 수입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라도 女子들이 家事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男子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여야 하겠다.

濟州島 家族의 母中心的 성격은 一夫多妻制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濟州島의

一夫多妻制는 陸地部와는 달리 妻妾間에 獨立된 생활을 영위하고 社會身分上의 차별이나 차이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崔在錫 1979:189).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濟州島 女子들의 생활의 獨立性 때문이다. 男子들이 家族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役割을 하지 않기 때문에 男子가 家出을 하여도 家事運營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濟州島의 一夫多妻制가 행하여지는 理由로서 濟州島의 男子들이 婦人의 支配를 방지하는 方便으로 또는 夫婦間의 갈등이 이혼에 이르지 않고 별거에서 그치도록 완화하는 장치로서 一夫多妻制를 들고 있다(趙惠貞 1982:158). 一夫多妻制의 원인이야 어떠하든 이것이 가능한 것은 女子들의 生活能力에 의한 것이며 그러기에 諸妻가 독립적이고 이에 따라 濟州島의 一夫多妻制는 陸地部の 一夫多妻制와 構造的 내지 本質的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濟州島 家族은 既婚女子 1인이 單位가 되는 母中心의 家族이며 獨立性이 강한 家族이라 하겠다.

Ⅲ. 親 族 制 度

(a) 親族制度에서 濟州島의 특색으로 손꼽는 것이 居住規定이다. 居住規定이란 婚姻한 夫婦가 어디다 居處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韓國의 居住規定은 母處-父處制를 특성으로 한다. 이것은 이미 魏誌 東夷傳 이래 우리나라의 特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李朝時代에 이르러 朱子家禮를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고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婚禮를 新婦집에서 거행하고 첫날밤을 지낸 다음 引再行을 하고 3일만에 新行을 하여 축소된 形態이지만 母處-父處制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島의 경우 婚禮 자체가 陸地와 다르며 婚禮의 中心이 되는 儀禮를 新郎 집에서 행하고 新房을 新郎 집에서 맞이하는 철저한 父處制를 취하는 것이 특이하다(崔在錫 1979:129).

앞서 본 것과 같이 婚禮式을 올리고도 新婦가 獨自的인 취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親庭을 왕래하면서 며칠씩 묵고 가는 것이 마치 陸地部の 母處-父處制

를 역으로 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母處-父處制를 행하는 陸地部에서는 新婦는 집에 있고 新郎이 再行걸음을 하는 것이고 濟州島에서는 新婦가 왕래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母處-父處制라 할 수 없다.

(b) 居住規定과 관련된 것으로 婚禮를 들 수 있다. 濟州島의 婚禮에는 陸地部の 婚禮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가 없다. 전안례란 新郎이 木雁을 상위에 놓고 北向四拜를 하는 것이고 交拜禮는 新郎과 新婦가 大禮床을 앞에 놓고 절을 교환하는 것이고 合巹禮는 술잔을 나누는 것이다.

濟州島에 이러한 三禮가 없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되는 것이 陸地의 南海岸 도서지방에 있는 小禮 婚禮이다. 예컨대 慶尙南道 통영군 사랑도에는 婚禮가 전안례만 행하고 교배례와 합근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婚禮가 北에서 南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도서지방이란 특수 사정으로 南部海岸地帶에선 小禮만 행하고 大禮가 없어졌으며 濟州島에는 小禮마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問題는 좀더 연구되어야 할 흥미있는 問題의 하나이다.

(c) 親族의 構造上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 兄弟들간의 均分相續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濟州島의 均分相續이 中國의 均分相續과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陸地部の 長子優待不均等相續과는 큰 差異가 있는 한국식 均分相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兄弟間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親族體系上 直系와 傍系의 區別이 명확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兄弟間的 平等意識은 財産의 相續에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祭祀를 輪回하거나 祖上의 祭祀를 分配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直系와 傍系의 區別이 명확한 陸地部에서는 直系를 계승하는 長子가 祭祀를 독점하고 堂內親의 정신적 支柱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간다. 그러나 濟州島에서는 이러한 直系尊重의 원리가 희박하거나 없는 셈이다.

祭祀의 分割과 輪回에 관하여도 慶南 統營, 全南 진도, 江原道 대관령 등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것과 더불어 人類學界에서는 祭祀의 分割이나 輪回가 행하여지는 地域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과 옛날의 分財記에 輪回를 행하였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李朝末에 고정화된 祭祀의 長子繼

承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祭祀가 윤회하였으며 濟州島의 事例도 이것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d) 兄弟間의 祭祀의 輪回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딸의 祭祀參與이다. 濟州島에서는 部落內婚이 많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딸들이 멀리 出嫁하지 않으며 따라서 親庭에 왕래하기가 용이하다. 父母의 生前에 많이 왕래하였듯이 父母의 死後에 父母의 祭祀에 참가하는 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重要的 것은 아들이 없을 때 사위가 祭祀를 받들고 이어 外孫이 奉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딸도 父母의 祭祀를 받들 수 있고 그것을 自己 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親族制度上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딸이 父母의 祭祀를 모실 수 있는 것과 같이 父母의 喪을 당하여 특히 딸이 음식을 담당하여 조반과 점심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딸의 집이 가까우면 문상객, 친척, 상듯군 등이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며 딸의 媵宅食口들이 이들 손님을 대접한다(崔在錫 1979:319).

이것은 兄弟만이 아니라 兄弟姊妹가 同等하게 父母의 大事에 참가한다는 社會學的 意味를 표현하는 것으로 濟州島에서는 兄弟姊妹가 비교적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e) 濟州島 親族制度의 特色을 보여주는 것이 親族用語이다. 濟州島에서는 兄弟를 구별하는 呼稱이 年上者와 年下者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呼稱으로 ‘오라방’이라 하는 것은 年齡原理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兄弟間에 均分相續에 의한 直系 傍系の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親族用語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特徵이 四寸에 관한 呼稱이다. 陸地에서 행하는 四寸에 관한 호칭은 親四寸, 姑從四寸, 外從四寸, 姨從四寸 등 모든 四寸에 다른 用語가 있다. 이것을 人類學的 用語로 말하면 父邊 平行四寸, 父邊 交叉四寸, 母邊 平行四寸, 母邊 交叉四寸의 모든 범주가 구별이 되는 親族用語體系인 것이다.

그러나 濟州島의 四寸에 관한 親族用語는 姑從四寸과 親四寸이 같은 用語로

불리우고 姨從四寸과 外從四寸이 같은 用語로 불리운다. 말하자면 母邊과 父邊의 區別은 있으나 平行과 交叉의 區別이 없는 用語體系를 갖고 있다(崔在錫 1979:147).

이러한 四寸에 대한 親族用語의 區別은 父母世代에서 父의 兄弟와 姊妹를 같이 취급하고 母의 兄弟와 姊妹를 같은 범주에 分類하는 意識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 喪禮時 父母의 喪에 아들과 딸이 다 같이 참가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兄弟姊妹의 同等意識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親族用語의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장인과 장모를 아버지·어머니라 호칭하는 것과 外家에 대하여 外할아버지·外할머니 등에 外字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外三寸도 호칭에서 삼촌이라고만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父系와 母系를 陸地部보다 엄격히 區別하지 않는 濟州島民의 親族制度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濟州島의 親族制度上的 特性은 兄弟間의 序列이 分明하지 않은 平等主義的 성격이 兄弟에 한하지 않고 姊妹에까지 확대되는 성향이 있으며 이것은 더 나아가 父系와 母系를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는 兩邊 존중적 親族制度上的 特性을 보여준다.

이러한 親族制度의 特性은 親族의 分類에서도 볼 수 있다. 陸地部에서는 親族을 分類할 때 父系親을 親族, 母系親을 外戚 그리고 妻族을 姻戚이라 하여 이것을 一族二黨制라 부른다. 濟州島에서는 親族을 姓便이라 하고 外戚을 外便 그리고 妻族을 妻便이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三便制라 할 수 있는 것으로 三族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便이라는 用語가 흥미있는 표현이다(玄容駁 1973:81).

IV. 親 族 組 織

(a) 姓便·外便·妻便 등은 親戚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實際 機能을 가진 集團은 아니다. 이런 것을 人類學에서는 個人的 親屬(kindred)이라 하고 便으로 표시된 것을 lateral이라 한다. 말하자면 姓便은 patrilateral, 外

便을 matrilineal 그리고 妻便을 uxorilateral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세 범주 내지 세 방향으로 무한히 확대될 親戚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일정한 權利義務를 부과하여 이른바 親族集團을 形成하는 것이다.

濟州島에는 모든 親戚을 망라하는 用語로 ‘켄당’이란 용어가 있다. 이것은 三族을 총망라하여 관련된 사람이란 범위를 표시하는 말이다. 父系親인 姓便을 표시하는 말에 ‘일가’라는 用語가 있다(玄容駿 1973:81).

陸地部에서는 父系親을 말할 때 ‘일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同姓同本이란 말로 사용한다. ‘일가’라 할 때 그것은 濟州島에서 말하는 ‘방상’의 범위를 말한다. ‘방상’이란 父系親에서 近親이라 생각되는 범위를 말하며 祖上祭祀에 相扶相助하는 宗族으로 8寸 이내를 말하는 陸地部の 堂內親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陸地部에서는 一家라 한다. 따라서 ‘일가’란 용어가 濟州島에서는 넓게 사용되고 陸地部에서는 좁게 사용된다.

켄당·일가·방상 등의 用語가 비록 그 범위는 달라도 集團의 機能에서는 差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켄당은 親戚全體를 지칭하는 一般用語이고 姓便을 표시하는 일가는 外婚制를 표시하는 것이며 방상은 祖上崇拜를 행하는 父系親의 集團이라 하겠다.

(b) 濟州島에서의 방상 즉 陸地部の 堂內는 中國 五宗法을 모방한 것으로 이것은 父를 中心한 禰宗, 祖를 中心한 祖宗, 曾祖를 中心한 曾祖宗 그리고 高祖를 중심한 高祖宗의 四宗을 말하고 이들을 小宗이라 하며 四代를 넘는 大宗을 합하여 五宗이라 한다.

陸地部에서는 四代를 奉祀하는 宗孫이 死亡하고 宗孫의 子가 忌祭祀를 계승하면 前宗孫의 高祖이나 現宗孫의 五代祖의 위패를 매환하고 忌祭를 폐지하지만 濟州島의 경우 支孫이 四代를 지날 때까지 現宗孫이 계속하여 祭祀를 행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宗孫이 五代祖 六代祖의 忌祭를 모시기도 한다 (崔在錫 1979:255).

朱子家禮에 의하면 宗孫이 四대가 지나도 支孫에서 四대가 지나지 않으면 그 祖上의 위패를 支孫家에 천사케 하는 법이다. 그러나 濟州島의 경우 支孫에게

제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忌祭祀에서 특이한 것은 앞서 본 忌祭祀의 分割이었다. 祭祀의 分割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宗孫이 행할 경우 支孫들은 반드시 祭需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祭需의 분담은 한 집에 과중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祭祀의 分割 내지 輪回의 기본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忌祭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의 하나가 祖上의 紙榜이다. 濟州島에서는 考位와 妣位를 한 紙榜에 모시는 것이 특이하였다. 陸地에서는 위패나 紙榜이 1人 1位이며 忌祭時에 合祀로 하는 곳과 單祀로 하는 구별은 있었으나 두 位를 한 紙榜에 모시지 않는다. 이것은 夫婦의 平等을 말하는 意識構造의 표현일 것이다.

(c) 四代가 대진하여 집에서 忌祭祀를 폐지한 上代의 祖上을 모시고 時祭를 지내기 위해 이룩된 組織을 門中이라 한다. 堂內와는 달리 門中에서 모셔진 祖上은 五代祖 이상 始祖까지 무한히 많은 祖上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큰 姓氏의 경우 派始祖를 갖거나 地域에 따라 별도의 門中을 組織하여 한 姓氏內에 수십개의 門中이 있을 수 있다.

濟州島의 경우 地理的인 條件과 入島祖 이래의 歷史 등의 특수 조건으로 大門中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작은 門中들은 발달하였다. 작은 門中은 財政的 理由로 큰 齋室이나 비각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도 祖上의 各位마다 位土를 두고 3월의 時祭때에 墓祭를 지내는 것이다.

陸地部에 入島祖의 윗대가 확인이 되고 上代 門中이나 宗親會와 관련이 되면 大部分의 姓氏들은 代表를 과견하여 元始祖의 時祭에 참석케 한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濟州島에서는 오히려 陸地部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祭祀를 지내는 것이다.

(d) 祭祀에 관하여는 父系出系集團(patrilinal descent group)의 특징을 잘 표현하며 陸地部와 대차 없다. 특히 濟州島의 上位體系를 이루는 男性들의 世界 즉 理想型의 原理를 반영하기에 더욱 祭祀가 잘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집안에서의 忌祭祀에 관한 것으로 집에서 祭祀는 男子들의 전유라고 한다. 한 달에도 몇번씩 祭祀를 지내기에 男子들은 祭祀에 익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의 祭祀에 참석하여 음복을 하며 禮節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男子들의 祭祀는 집안에서 또는 墓所에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洞祭에 있어서도 洞神을 儒教式으로 모시는 酬祭가 男子들의 儀禮이며 한 마을에서 女子들만이 모여 행하는 本鄉堂맞이와는 다른 것이다.

(e) 堂內와 門中이 발달하고 祭祀가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濟州島의 特性은 姓便 못지않게 外便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고적’이다. 葬禮를 집행하는 도중 상뚝군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할 떡을 마련해 가는 것을 ‘고적’라 하며 이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니 父系로 四寸까지의 범위에 메밀쌀 두 말에 해당하는 떡을 하여야 하고 姑從도 四寸까지, 外從도 四寸 그리고 姨從도 四寸까지의 범위는 차별없이 메밀쌀 두 말분의 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父系親에서 5寸에서 8寸까지의 범위의 사람에게는 메밀쌀 한 말에 해당하는 떡을 하면 된다(玄容駿 1973:82). 말하자면 父系 母系 구별 없이 모든 四寸에게까지 동등한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다만 父系親에게는 방상의 범위를 인식하여 5寸에서 8寸까지는 四寸에 해당하는 것의 半을 부여하는 것이다.

V. 論 爭

濟州島는 地理的인 조건과 文化的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간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으며 하나의 道로서 社會學 내지 人類學 分野에서만도 다른 道가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研究가 있었다. 單行本만 하더라도 泉靖一의 《濟州島》(1966)가 있고 崔在錫의 《濟州島의 親族組織》(1979)이 있었다. 崔在錫의 著書가 出版되자 金漢九는 崔在錫의 研究가 研究의 目的이나 方法에 큰 결함이 있다는 評을 가하여 이른바 濟州島 論爭을 제기하였다.

論評의 주된 내용은 家族에 관한 것, 部落內婚에 관한 것 그리고 전체적인 方法論에 관한 것이었다.

家族에 대한 問題는 우선 家族의 形態를 분류하면서 金漢九는 核家族과 直系家族이라는 用語 이외에 血緣家族(consanguineous family)와 結合家族(composite family)이란 것을 제시하였다. 血緣家族이란 夫婦家族에 男便의 祖母나 曾祖母를 더한 家族을 말하고 結合家族이란 核家族 直系家族 血緣家族 범주 외에 속하는 한 家族單位를 말한다(金漢九 1980:185).

이러한 金漢九의 구분은 崔在錫이 祖母가 孫子의 夫婦와 同居하는 家族을 核家族란에 분류한 것에 반대하여 血緣家族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金漢九의 분류의 기준이 혼돈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祖母가 孫子 夫婦와 同居하는 것은 直系家族의 變形이라 할 것이지 그것을 血緣家族이라 하는 것은 家族分類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家族問題에 있어 濟州島 家族이 核家族化의 傾向이 강하다는 崔在錫의 말을 받아 金漢九는 濟州島 家族이 西歐나 美國에서 볼 수 있는 夫婦中心의 家族 특히 高度産業社會에서나 볼 수 있는 家族인 核家族과 어떻게 같으나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다(金漢九 1980:185).

이것은 우리가 現在 남용하고 있는 核家族이라는 개념은 西歐社會의 產物이며 夫婦中心의이고 극히 高립적이라는 점에서 실은 西歐나 美國 이외에서는 그 예를 보기 드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人類學에서는 반드시 高度産業社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原始的인 수렵채집민 社會의 家族도 核家族이라 하고 夫婦가 未婚子女로 이루는 家族도 夫婦家族 내지 核家族이라 부른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도 濟州島에 존재하는 夫婦家族을 核家族이라 하여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앞서 韓國의 直系家族에서 西部型 東南型 濟州型 등의 類型이 있다는 식으로 濟州島의 家族을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두번째 제시한 金漢九의 반론은 部落內婚制의 문제였다. 崔在錫은 濟州島의 S 部落을 研究하면서 이곳에서는 部落內婚制가 많기 때문에 親族組織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金漢九는 西海岸의 漁村을 조사한 브란트의 사례를 들어 部落內婚制와 父系親族組織의 약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金漢九 1980:189).

部落內婚으로 인하여 姻戚間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父系親族에게만 의존하려는 傾向이 적어지기 때문에 部落內婚制와 父系親族組織의 強化와는 직접적인 관

계가 있어 보일 수 있겠으나 실은 金漢九가 지적하듯 兩者間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金漢九와 崔在錫의 論爭에서 가장 심각하였던 것이 崔在錫의 S部落에 관한 調查研究가 專門家的인 研究 즉 프로페쇼널리즘이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研究라 한 것이다. 그 예로서 崔在錫이 一夫多妻制를 논하면서 Herskovitz의 單語를 인용하였지만 그 본래의 뜻을 몰랐으며 死後婚을 언급하면서 주에 언급한 Freedman의 死後婚과 親族組織에 관한 理論을 몰랐다는 것이다(金漢九 1980: 183).

물론 崔在錫이 S部落을 調査한 것은 어떤 理論의 틀을 갖고 그것을 검증하려는 理論的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現地調査를 행한 研究로서, 한 地域의 資料를 중심으로 濟州島의 親族組織을 일관하여 보려는 研究로서 가치있는 것이다. 그것을 특히 편협한 한 部分에서 특히 人類學者의 理論을 모르고 인용하였느니 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金漢九가 濟州島의 다른 地域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참다운 人類學的 연구를 시도하며 崔在錫이 일관있게 설명하지 못한 家族構造와 親族體系 部落生活을 일관성있게 설명하고 그 根底에 있는 濟州島 社會構造의 原理를 설명함이 옳았을 것이다.

약간 미숙한 점이 있으나 예컨대 趙惠貞은 海女를 중심으로 男性과 女性의 社會關係를 설명하고 이들간에 있는 심리적 갈등 그리고 價値觀의 대비 등을 설명한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VI. 結 論

濟州島의 社會人類學的 研究는 이제 초기단계를 지나 제2단계로 도약을 하는 시기에 이른 느낌을 갖는다. 초기단계의 研究는 民族誌的 資料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여지껏 單行本 내지 論文의 형식으로 발표된 20여편의 研究가 이에 해당하는 업적들이었다. 崔在錫과 金漢九의 논쟁이 비록 理論的 對立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平面的 敘述的 研究에 중지부를 찍고 立體的이고 理論的인 研

究에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社會人類學에서 가장 흥미로운 問題는 濟州島 家族의 特性을 좀더 다각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濟州家族을 母中心의이고 既婚女性을 單位로 하는 獨立性이 강한 家族이라 하였으나 이곳에도 몇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 社會經濟的 理由가 무엇인가를 問題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親族制度에서 母系 父系를 同等하게 취급하는 것과 父系集團이 발달하지 않은 것 등도 家族과의 연관에서 그 特性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分野는 濟州島 文化의 兩分性原理이다. 家族이나 部落生活에 있어 男女의 分業이나, 女子의 經濟權과 男子의 祭祀權의 分擔 등이 陸地部보다 현저한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耕作地는 男子가 所有하되 耕作은 女子가 한다는 所有와 耕作의 分離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이러한 分離는 男子는 성스럽고 女子는 속세적이라는 二分法世界觀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趙惠貞은 男女의 經濟權의 所有와 관련지어, 일하는 女子에게는 별문제가 없고 일이 없는 男子들이 놀음·女子·祭祀 등 한가하고 주변적인 役割로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濟州島의 二分法的 社會原理는 象徵主義 構造主義者들이 설명하듯 보다 심원한 原理를 가진 것이지 단순한 役割論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식의 世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社會人類學만이 아니라 모든 學問들이 여러 領域에서 研究를 深化시키면서 해명될 問題일 것이다.

셋째 濟州島의 社會構造는 婚禮나 祭祀에서 보인 것과 같이 韓國의 文化나 社會의 보다 原初的인 形態를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이방면의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韓國이 보다 儒教化하기 이전의 文化類型과 社會構造를 알 수 있는 것은 濟州島의 것을 탐구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濟州島의 社會人類學的 研究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영역일 것이며 이런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參 考 文 獻

金榮敦

1970 : 濟州島海女研究序說, 省谷論叢 1輯.

1971 : 濟州島 海女の 出稼, 민속학논총 石宙善화갑기념.

金漢九

1980 : 濟州島의 親族組織 書評, 韓國學報 19輯 pp. 181 ~ 195.

李光奎

1974 :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pp. 22 ~ 60.

趙惠貞

1982 : 濟州島 海女社會 研究, 韓相福編 韓國人斗 韓國文化 pp. 143 ~ 168.

崔在錫

1979 :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一志社.

玄容駿

1970 : 濟州海村生活의 調查研究 I, 濟州大論文集 2輯.

1973 : 社會,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大國文科 社會調查班

1972 : 社會背景(倉川里), 濟州大國文學報 4輯.

1973 : 家族(牛島), 濟州大國文學報 5輯.

泉靖一

1966 : 濟州島, 東京, 東京大出版會.

佐藤信行

1973 : 濟州島の 家族, 中根千枝編 韓國農村の 家族と 祭儀 pp. 109 ~ 146.